

충북대 수의학과 이건휘씨, 우슬의 면역력 증가효과 발견

에듀동아 신유경인턴 기자|입력 : 2018.05.15 16:53



충북대학교 수의학과와 이건휘(만 27세, 석사1년, 지도교수 최경철) 씨가 지난 10일(목)부터 12일(토)까지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열린 ‘대한수의학회 2018년 춘계국제학술대회’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.

이건휘 씨는 ‘개에서 우슬의 면역증진효과(One of the medical herbs, the *Achyranthes japonica* Nakai, increases the canine immunity)’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.

이 연구에서 이건휘 씨는 부종과 관절염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인 우슬이 반려견의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했고, 각각의 반려견들은 우슬이 포함된 사료 섭취에 의해 혈액 내 PBMC (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)에서 T세포와 B세포의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.

이를 통해 우슬이 포함된 처방식 개 사료가 여러 질병에 기인한 염증 치료에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증명해 상을 받았다.

한편, ‘대한수의학회 2018년 춘계국제학술대회’에는 전국 수의과대학 교수를 포함한 여러 관련 분야의 연구자 및 대학원생 등이 참석하여 ‘제 1회 동아시아 수의학 공동 회의(The First Joint Meeting of Veterinary Science in East Asia)’라는 타이틀로 성대히 개최됐으며, 관련된 다양한 최신 수의학 연구를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.